2017.6.19 409호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청년들에게 여름휴가 보조비 준다	파리
산업·경제	3	밤문화 활성화 겨냥 유명방송인, '밤의 황제'로 임명	런던
사회·복지	5	스포츠 분야 여성 참여 높이고 여성지도자 대거 육성	빅토리아
환경·안전	7	'시민과 함께 깨끗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파리
도시교통	9	'교통사고 최소화' 도로설계에 빅데이터·AI 활용	뉴욕
	11	수상 부유식 철도교량 이달 착공·2023년 완공	시애틀
도시계획·주택	12	'문화적 가치' 항만 창고시설 이용해 문화지구 조성	뤼베크
뉴스인사이드	15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청년들에게 여름휴가 보조비 준다

13만~26만 원…사전에 관광 목적 휴가계획서 내야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경제적 문제로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전에 관광 목적의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팀이나 개인에게 100~200유로(13만~26만 원)의 여름휴가 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 배경
  - 프랑스에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대휴가(Grandes Vacances) 시즌이 존재
    - 이때 대부분 시민이 휴가를 떠나며, 프랑스인은 휴가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
    -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문제로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고 있음
    -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파리시는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여름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여름휴가 보조비 지원을 결정
  - '파리 청년 공간'(Espaces Paris Jeunes)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
    - '파리 청년 공간'은 11~3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정보제공, 인적교류,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자 제도의 이름
    - 여름휴가 보조비는 이곳에서 시행하는 '청년 바캉스 정책'(dispositif Paris Jeunes Vacances)의 하나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16~30세의 파리에 거주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권리가 있음
  - 각 팀 혹은 개인당 100~200유로의 보조비를 지급
  - 사전에 관광 목적의 휴가계획서를 제출
    - 6인 이하로 구성된 단체 혹은 개인의 3박 4일 이상의 휴가여야 함
    - 부모와의 여행, 직업적 목적 또는 자원봉사 목적의 여행이어서는 안 됨

- 보조비 지급심사를 위해 재정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구마다 설치된 '청년 부스'에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구의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http://www.leparisien.fr/paris-75/coup-de-pouce-pour-les-vacances-des-16-30-ans-18-11-2016-6341712.php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aides-et-demarches/aides-allocations-et-subventions/les-aides-pour-les-jeunes-2325

https://www.paris.fr/parisjeunesvacances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산업·경제

밤문화 활성화 겨냥 유명방송인, '밤의 황제'로 임명

영국 런던市 / 산업·경제

○ 영국 런던市는 지난 2016년 11월 유명방송인 '에이미 레임'(Amy Lamé)을 런던 최초의 '밤의 황제'(Night Czar)로 임명함. 밤의 황제는 침체된 런던의 밤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와 주민·정부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 중

- 배경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과 폐업으로 침체 중인 런던 밤문화 산업
    - 영국의 밤문화 산업(클럽, 라이브 공연, 바, 코미디, 파티 등)은 2014년 기준 263억 파운드(3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 그러나 지난 5년간 런던 전체 클럽의 50%와 음악 공연장의 40%가 문을 닫아 영국 전체 실업률 상승에 한몫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내몰림과 소음 관련 민원으로 클럽이나 공연장이 점차 사라지는 중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24시간 런던'(24hr-London)을 정책 기조로 제시
    - '나이트 버스'(Night Bus)와 '나이트 튜브'(Night Tube)로 대표되는 야간 대중교통 정책에 이어, '밤의 황제'를 임명

- '밤의 황제'의 권한과 하는 일
  -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권한
    - 시에서 32,000파운드(4,6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주 2.5일 근무
    - 밤문화 관련 사업가, 도시 개발자, 공무원(경찰청·교통 공사 등 포함), 야간 근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소집해 회의를 주도할 권한
    - 실질적 정책 입안 권한은 없지만, 런던시장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정책에 제언할 수 있음
  - 밤문화의 대변자, 관련 문제의 중재자, 변화를 추진하는 운동가의 역할

- 밤문화 사업체와 주민 간의 중재자
  - 클럽·공연장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규 클럽에 방음 설비 설치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
- 안전한 밤문화를 유도
  - 여성에게 안전한 밤문화 형성을 위해 '여성 안전 총회'(Women's Safety Summit)를 런던 최초로 개최할 계획
- 밤문화의 이미지 악화, 소비 성향 변화, 둥지내몰림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런던 밤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관련 사업주체와 런던 시의회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부족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자 겸 대변인 역할을 수행
  - 특히 '24시간 영업 허가권'(24-hours license)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 정치인에게는 밤문화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대중에게는 문화적 중요성을 주로 홍보

- 초대 밤의 황제, '에이미 레임'
  - 작가, 활동가, BBC 라디오 진행자, 유명방송인, 성소수자(LGBTQ+) 나이트클럽 운영자이자 2010~2011년 런던 캠든 자치구 여성시장을 역임

그림. 런던 초대 '밤의 황제' 에이미 레임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night-czars-night-surgery-discovering-londons-life-night

https://www.iq-mag.net/2017/05/rock-roll-night-amy-lame/

http://mixmag.net/feature/10-ways-the-night-czar-can-improve-london-clubbing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oct/22/london-sadiq-khan-night-tsar-club-closures-24-hour-city-fabric

http://www.dw.com/en/why-urban-planners-should-pay-attention-to-nightlife/a-18274824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사회·복지

스포츠 분야 여성 참여 높이고 여성지도자 대거 육성

호주 빅토리아州 / 사회·복지

○ 호주 빅토리아州는 남성 중심의 스포츠 문화와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4년간 '게임 판도 전환: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Change Our Games: Advancing gender equality in Sport)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 지도자의 비율을 높일 계획

- 배경
  - 주정부는 주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
    -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으로 보건 재정 부담의 감소 효과
  - 아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더 많고, 여성의 비중이 작아
    - 호주 전체 인구의 60~70%는 스포츠·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클럽 등 조직화된 스포츠 활동에서 여성 참여율은 전통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여성 지도자와 관리자가 부족
      - 관련 협회·조직 등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9%에 불과
  -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을 위한 전략수립
    - 2015년 11월 말 '여성 스포츠·레저 분야 5개년 계획' 보고서를 발간
    - 주정부는 보고서의 제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7/18 회계연도에 620만 호주달러(5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

- 주요 내용
  - '게임 판도 전환' 정책이 추구하는 2대 목표
    - 1) 여성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 향상
    - 2)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와 관리자의 비율 증가
  -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양방향 전략
    - 아래로부터의 변화: 환경 변화와 인프라 구축으로 풀뿌리 여성 스포츠 클럽 활성화

◦ 위로부터의 변화: 정책을 선도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 지위에 더 많은 여성을 배치

- 총 4개 주제 아래 9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

표.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실행 방안

주제	정책 제안
1.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	◦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 –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양성평등 이슈 부각 ◦ 여성 스포츠 지도자와 홍보대사 간의 직접적인 협력 사업 추진 ◦ '성 균형'(gender balance)을 바람직한 조직 운영 원리로 명문화 –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스포츠 기관은 운영위원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할당
2.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혁신	◦ 관리자 모집 방법 개혁 –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없애고 여성 포용적 업무 환경 제공 ◦ 여성의 참여 선택권 향상 –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 요소 해소
3. 환경 변화	◦ 가족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제공 – 스포츠 시설에 영유아·노약자·여성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 가능성과 안전성을 재검토 ◦ 훈련 및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 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학교 체육 교육과의 연계 등
4. 성과에 대한 홍보	◦ 롤모델을 활용한 성과 홍보 ◦ 스포츠 미디어에 여성 출연 증가

– 진행 상황

- 지방정부(구청), 주정부, 분야별 스포츠계 대표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설립
- 6개 스포츠 분야의 조직과 클럽을 여성 포용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재정지원
  - 재정지원 대상: AFL(호주 미식축구 리그), 빅토리아 자전거 협회, 빅토리아 체조 협회, 빅토리아 넷볼(Netball: 호주식 농구) 협회, 빅토리아 서핑 협회, 빅토리아 테니스 협회
- 유명 여성 스포츠인들이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활동 중
- 각 지역사회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 클럽의 시설을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1천만 호주달러(85억 원)를 투자

http://www.premier.vic.gov.au/boost-to-level-the-playing-field-for-women-in-sport/

http://www.changeourgame.vic.gov.au/change-our-game

http://sport.vic.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1704/Inquiry%20into%20women%20and%20girls%20in%20sport.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환경·안전

‘시민과 함께 깨끗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市는 2014년부터 청결도 향상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았으며, 올해 3월 시의회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파리 청결 프로젝트’(Objectif Paris Propre)를 제시

- ‘파리 청결 프로젝트’의 배경
  - 최근까지 도시 청결 문제에 시달려온 파리시
    - 쥐·진드기·바퀴벌레 등이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특히 청소년 건강에 위협이 되었음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2014년부터 파리의 청결도 향상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
  - 2016년부터 시행한 청결 강화 계획으로 관련 민원 57% 감소
    - 시정부는 2016년 2월 ‘파리 청결 강화 계획’(Plan de renforcement de la proprete)을 채택
      - 260여 명의 청소노동자 추가 고용, 3,800만 유로(480억 원)의 예산 투자, 재떨이 쓰레기통 3만여 개 추가, 청소 장비 현대화 등으로 2년 만에 도시 청결 관련 민원을 57% 감소
  - 2017년 3월 시의회에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시민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출
    -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도시를 깨끗이 만들 수 있도록 도시 청결을 중시하는 시민 문화를 육성하려는 취지

- ‘파리 청결 프로젝트’의 목표
  - 다양한 수단과 경로를 동원해 시민이 도시 청결 유지에 참여하도록 유도
    -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시민이 청결 관련 문제를 관련 기관에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함

- ‘파리 청결 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사항
  - 1) 도시 청결 유지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
    - ‘우리 동네에서’(DansMaRue)라는 파리시 민원 전용 앱을 활용하여 청결 민원을 손쉽게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
    - 시민, 구별 대표자, 공무원 등이 함께 ‘도시 청결 관련 회의’를 진행
    - 시민 중 일부를 ‘청결 대사’로 임명하여 시민과의 소통 통로로 활용
    - 청소년이 도시 청결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 2) 청결 수단 강화와 청결 서비스 현대화
    - 2017년에 100여 명의 청소노동자를 추가 고용하고, 도로 물청소차량도 48대 추가 도입
    -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형식의 ‘도시청결 관리감독팀’을 신설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관리 감독
    - 파리시의 청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 쥐를 소탕하기 위해 150만 유로(19억 원)를 투입
    - 구마다 청소노동자, 관련 공무원, 청결 대사, 도시청결 관리감독팀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명
  - 3) 행동 가능한 공공기관과 시민 구성원 모두를 활용하기
    - 지하철공사, 철도청,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이 가진 도시 관련 전문지식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시 청결 관련 회의’를 운영
    - 건물 관리인과 소유자에게 건물마다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하고, 낙서·포스터 부착·쓰레기 투기 등을 잘 감시하도록 유도

http://www.paris.fr/actualites/objectif-paris-propre-de-nouvelles-mesures-pour-la-proprete-4629

https://www.paris.fr/municipalite/action-municipale/le-plan-de-renforcement-de-la-proprete-3338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교통사고 최소화’ 도로설계에 빅데이터·AI 활용

미국 뉴욕市 / 도시교통

○ 미국 뉴욕市는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량·도로의 형태·교차로의 구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확률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앞으로의 도로설계에 반영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

- 배경
  - 보행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뉴욕시
    - 맨해튼 지역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60%가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로 집계
    - 2013년부터 교통 공학자들은 맨해튼 지역의 교차로 안전 개선을 주요한 교통 프로젝트 목표로 설정
    - 보행섬 설치, 좌회전 전용 차선 분리, 좌회전 금지, 도로폭 변화, 음향 신호등 설치 등으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을 68% 감소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련 기관의 관심이 늘어
    - 2015년 8월 뉴욕시는 교통공학적 개입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카인드’(Datakind)라는 비영리 단체와 제휴
      - ‘데이터카인드’는 사회적 분야에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 주요 내용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한 구역의 교통상황을 예측
    - 수많은 도로의 차량 통행량을 ‘읽고’, 통행량 분포의 윤곽을 ‘배우고’, 비슷한 구역의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
  - 통합적인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교통사고 발생률, 도로 간격, 보행 광장의 위치, 신호등의 시간 간격, 버스·자전거 차선, 수송 일정, 소매상의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 가능

- 활용 계획
  - 교통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
    - 도로폭 변화나 좌회전 금지 등과 같은 개선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
  - 분석결과를 앞으로의 도로설계에 반영하여 교통사고 최소화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개선책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지를 제시

https://www.citylab.com/cityfixer/2017/05/new-york-city-seeks-the-holy-grail-of-street-design/526095/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ssi-2012-7th-av-23rd-st.pdf
http://www.datakind.org/blog/the-power-of-data-and-collaboration-to-improve-traffic-safety/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수상 부유식 철도교량 이달 착공·2023년 완공

미국 시애틀市 / 도시교통

○ 미국 시애틀市는 2017년 6월 세계 최초로 경량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수상부유식 철도교량을 워싱턴호(湖)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3년에 완공할 예정

- 주요 내용
  - 경량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수상 부유식 철도교량을 시애틀시에서 워싱턴호를 건너 벨뷰(Bellevue)市를 잇는 구간에 건설
    -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
    - 37억 달러(4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 가장 긴 수상 교량 구간의 길이는 1.76㎞
  - 300톤의 열차가 88㎞/h로 달릴 수 있는 내구성 확보
    - 기존에 있던 자동차용 수상 부유식 교량보다 높은 기술력 필요
  - 수상 부유식 교량의 기본적인 구조 유지
    - 속이 비어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폰툰'(pontoon)이 교량을 지지해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
    - 거친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제 밧줄로 호수 바닥과 연결
  - 흔들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 선로의 유연성 확보
    - 지진 공학의 내진 설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관절 부분을 베어링과 지지판을 이용해 고정하는 '트랙 브리지'(track bridge) 방식을 활용
  - 신기술의 안정성 실험
    - 컴퓨터 시뮬레이션 진행
    - 콜로라도州의 교통기술센터(Traffic Technology Center)에서 실물 크기의 실험용 교량을 2개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
    - 완공 후 최소 3개월간은 빈 경량전철로 시범 운행할 계획

https://www.citylab.com/transportation/2017/05/seattle-floating-bridge-light-rail-plans-bellvue-washington/526368/

https://m.soundtransit.org/east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e4Qhq-Mxbg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도시계획·주택

‘문화적 가치’ 항만 창고시설 이용해 문화지구 조성

독일 뤼베크市 / 도시계획·주택

○ 독일 뤼베크市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트라베(Trave)강의 발(Wall)반도(半島) 내에 있는 과거 항만 창고시설을 문화재로서의 원형을 보존한 채 주거 및 관광시설을 포함한 문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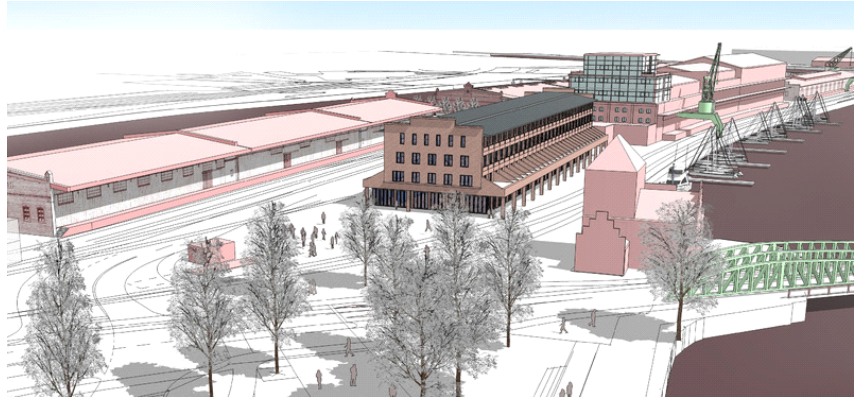

그림. 새로 조성될 문화지구의 조감도
자료: PIH社, 랄프 쉥켄베르거(Ralph Schenkenberger), 디지털모델링

- 배경 및 경과
  -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였으나, 중단되었던 프로젝트
    - 주택과 상업지대를 포함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카이라인’(Kailine: ‘부두’를 뜻하는 독일어 ‘Kai’와 영어 ‘line’의 합성어) 프로젝트 중 하나였음
    - 1885년부터 1949년까지 운영해왔던 항만 창고시설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충돌
  - 기존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지구 조성으로 사업 방향 변경
    - 2016년 2월 시의회에서 상업지구를 축소하고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변경안을 승인

- 주요 내용
  - A창고 및 C창고 시설물은 공연 시설로 활용
    - A창고는 대중음악과 록음악 공연장으로 변신하며, C창고는 대규모 부두 축제 시 이용 가능한 대형 콘서트홀로 개조
  - 1946년에 이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개조된 F창고에는 60~80호의 주택과 상가 및 각종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
    - 이 중 절반은 구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
  - 문화지구 입구에는 주차장과 4성급 호텔을 신축할 계획

- 예상 비용 및 사업 추진 전망
  - F창고에 들어설 주택 입주 비용은 유형에 따라 ㎡당 2,800~3,600유로(352만~453만 원)로 책정될 전망
  - 부지 매입비로 9백만 유로(113억 원)가 예상되며, 추가 투자비는 5천만~6천만 유로(629억~754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
    - 총투자비의 절반은 민간 자본과 항만운영조합의 투자금으로 조달할 계획
  - 시정부는 2018년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고, 2019년 초에 착공해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

http://www.immobilien-zeitung.de/141146/wallhalbinsel-wird-zum-kulturviertel

http://www.immobilien-zeitung.de/1000042662/luebeck-buergerinitiative-entwickelt-noerdliche-wallhalbinsel

선지원 통신원, jiwon.sun@gmail.com

뉴스인사이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임대료·첨단장비 지원해 의류제조산업 활성화** 2017.05.10

- 뉴욕시는 패션 디자인 및 마케팅뿐 아니라 의류제조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기획안을 발표함. 뉴욕시 내에 입지 공간을 마련해주고 임대료와 첨단장비를 지원해 의류제조산업이 뉴욕시의 허브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295-17/deputy-mayor-alicia-glen-borough-president-gale-brewer-council-member-corey-johnson-announce

○ **'30일 이내 급여 지급 의무' 등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조례 발효** 2017.05.15

-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시 조례가 공식 발효됨. 조례는 120일 동안 총 800달러(90만 원) 이상의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고용인의 서면 동의 계약서 작성, 작업내용에 대한 급여 및 일자 명시, 노동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함. 또한 소비자보호국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송에 대한 다양한 법률 지원서비스를 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07-17/freelancers-aren-t-free-mayor-first-nation-protections-freelance-workers

○ **체인 소매업체 메뉴에 칼로리 표시 의무화** 2017.05.18

-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체인 소매업체 메뉴에 칼로리 및 전체 영양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이에 해당하는 체인 소매업체는 전국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뉴욕시 내 모든 식품 소매업체이며, 이를 위반하면 200~600달러(23만~6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18-17/de-blasio-administration-new-calorie-labeling-rules

런 던

○ **버스 노선별 색상 지정하고 환승요금제 도입** 2017.05.02

- 런던시는 시내에서 더 편리하게 버스여행을 할 수 있도록 런던 동부의 버스 노선을 정리하기로 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별로 고유 색상을 지정하고, 노선별 버스 배차시간 개선, 호퍼요금제(환승요금제) 등을 도입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trials-new-tube-style-approach-to-buses

○ **스마트 도시 전략 수립할 최고디지털관리자 모집** 2017.05.03

- 런던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고디지털관리자를 모집함.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고디지털 관리자를 선정하고, 런던 이사회 및 시청과 협력하여 디지털·스마트 기술과 프로그램을 통한 런던 스마트 도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aunches-search-for-chief-digital-officer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